

2014년도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임원진 워크숍 결과보고

□ 이사회 개요

- 일 시 : 2014. 02. 17(월) 14:00~18:00
- 장 소 : 한국사회복지회관 6층 중회의실(서울 마포구 공덕동)
- 참석인원 : 총 34명
 - 임원진(19명)
 - 이사회 : 이희재, 오재록, 이양원, 김재웅, 원수연, 백원장, 전세훈, 김기혜, 송종길, 한창완, 이충호, 차성진, 송재용, 김용범, 박상민
 - 운영위원회 : 김동화, 김병수, 고정민
 - 기타 : 김종선
 - 배석자(15명)
 - 진흥원 : 오동택, 이용철, 김대진, 김선미, 김충영, 최미영, 오덕영, 백정재, 방희정, 박은선, 김성윤, 김선형, 성하석, 최종국
 - 관련부처 : 부천시 이수미 주무관
- 회의내용
 - 2013년도 지원사업 평가 결과 보고
 - 2014년도 진흥원 지원사업 안내
 - 2015년도 및 중장기 정책 의견 및 아이디어 수렴

□ 회의 결과

- 주요의견

사업명	발표자	의견내용
-----	-----	------

사업명		발표자	의견내용
전체		한창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'13년 성과가 없기에 '14년 목표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. '13년도 성과에 대한 산술적 데이터를 부탁하고, '14년도 목표가 '13년도 대비 어느정도 성장률이 있는가 비교분석, '13년의 산술적 통계 결과가 서울애니메이션센터나 콘텐츠진흥원의 결과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가까지 정리 필요. · 지원사업의 심사 시 참여 기준 등에 대한 내규화시키는 법안을 만들어야 하겠음.
디지털 만화 유통 활성화	표준계약서	전세훈	· 표준계약서 예산을 만화가 협회에 일임을 해서 클린계약을 하자라는 운동에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나 싶음.
		이희재	· 표준계약서를 진행할 업체가 만화계가 가동되는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면밀, 소상하게 설득력있게 조사를 하느냐는 부분에서 신경을 써야함.
		이충호	· 연구까지는 진흥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 운동은 만화가협회에서 진행하면 될 듯.
		차성진	· 추가적으로 작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데 국제저작권법에서 각 나라마다 다름.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.
		고정민	· 강제조약이 아니다보니 만들고 사장되는 경우가 있음. 안 지키는 기업이나 만화가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주는 방법을 쓰면 좋겠음.
		김재웅	· 표준계약서 프로듀싱 과정에서 창작자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음.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피해 등 많은 부분에서 연구되어야 함.
	신기술 교육	전세훈	· 신기술 교육한 프로그램을 녹화해서 올려놓고 내년에 신기술 교육비를 절감해서 다른 곳에 쓸 수 있으면 좋겠음.
		고정민	· 각 사업에 흩어져있는 교육사업을 한 곳에서 진행했으면 함.
만화자료종합 아카이브 만화규장각	전시	한창완	· 전시를 기획할 때 해외 공간 실무자들, 대사나 영사들, 자문 지원그룹을 영입해서 그분들이 기획전시를 보고 해외에서 추천이 될 수 있게 했으면 함. 현재 자료로는 제목만 만화한류육성이지 한류와 관련이 없어보임.
		이희재	· 8월 축제 때 이상무 선생님의 작품전을 하고 연구는 차후 차차 진행하면 좋겠음.
		한창완	· 올해 이현세, 박흥영 선생님 전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두 분 전시하고 특별기획전시가 중복되지 않게 일정 신경을 쓸 수 있도록.
		차성진	·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본 만화인의 작품전으로 갈 수 있게끔 스케일을 좀 키워주길 바람.
	자료 수집	차성진	· 고만화자료 수집 관련해서 몇몇 개인들이 고만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부분까지 챙겨서 고만화 자료 수집에 힘을 써 줬으면 함.
		한창완	· 만화자료 수집 관련하여 책을 사는 기준과 납본에 관련된 선정위원진을 정해서 평가를 받는게 필요함. 또한 상을 받는다면, 몇권이상 팔린다든지, 등의 기준을 제시해 주면 납본 시스템이

사업명		발표자	의견내용
			<p>효과적으로 구축되지 않겠나 싶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또한 단행본위원회같이 자동적으로 납본 시스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가면 좋겠음.
		이희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우리 만화가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사야하는지 모르는 곳이 태반임. 그런 것들을 안내가 되어주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음. 추천위원회라던지, 독자들의 평가를 받는다면지 해서 매분기나 방향마다 진행되는 것이 필요함.
	만화포럼	한창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화포럼위원 선정할 때 관련이사들과 협의를 해줬으면 함. 인력선정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. • 만화포럼 색인집이 누락 된게 너무 많음. 받아보는 사람이 연감이나 백서같은 성격으로 고민하는데 자료가 빠져버리면 신뢰도가 떨어짐.
신인작가 발굴 및 매체 육성	전체	김재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콘텐츠진흥원과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낼 것인가 고민이 필요함. 진흥원에서 창작물 나온것을 콘텐츠진흥원에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에 대해 전략을 잘 짜야함.
	매체 지원	원수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르지원에서 순정만화 지원이 필요함. 네이버 같은 안정성이 확보된 플랫폼에 넣어야 됨.
		김기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순정만화만의 정서를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함.
		차성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매체지원사업은 단기적으로 작가들은 정작 필요한 요구를 할 수가 없음. 장편에 대한 의지를 가진 작가들은 떠나감. 장기적인 타이들을 걸어서 승부를 내게끔 해야 함. • 현재 오프라인 시장이 힘들.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만화산업이 발전하지 못함. 오프라인과 온라인은 별도로 구분해서 지원해야 함.
		이충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특정장르를 지원했을때 문제가 있으므로 순정만화와 어린이 창작만화 두 가지 코드를 묶어서 지원하면 좋겠음.
	이희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린이 창작만화, 순정만화가 하나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면 좋겠음. 너무 방치되어 있음. 함께 정책의 방향을 잡고 해봅시다. 	
	웹툰 신인 작가 발굴	오재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인작가 기준을 웹툰의 연재 경력으로 3년이하로 협의
		차성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웹툰 신인들만 위주로 하지 말고 원로 작가들 중견 만화가 사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. 작은 규모라도 만화예술인복지재단을 설립하는데 출발을 했으면 함. • 심사 선정 과정에서 온라인, 오프라인 신청을 구분해서 했으면 함.
만화창조인력양성	원수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멘티에 대해 중간평가를 철저히 해서 작가들(멘토)에게 맞춰야 함. 	
	이충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멘토,멘티 조인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자기가 원하는 작가에 대해, 배우고 싶은 작가에 대해 조인해 주면 된다고 생각함. 	
	김기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멘토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. 멘토가 문화생을 고를 수 있도록. 	
	차성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7개월 단기로는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음. 보완작업이 필요함. 처음 	

사업명	발표자	의견내용
		신청단계에서 철저하게 추려야 함.
1인 창조기업 활성화 지원	전세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입주작가 평가 시 작가 단체들이 일부 참여하는게 어떤가? • 사무실만 차지하는 작가도 많이 있음. 이런 것들을 잘 가려내야 함. • 지원을 했지만 선택이 안 된 작가에게 꼭 답장 메일 서비스가 되었으면 함.
	차성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화가 입장에서 매출실적을 적어내는데 고역임. 매출현황보다는 어떤 작품을 어떻게 몇 년을 기획하는지 등을 조사하고, 센터 구성을 해서 펀드 조성에서 중간역할을 매칭시켜 주는게 좋을 듯.
기타	전세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원사업설명회 할 때 녹화를 해서 진흥원 홈페이지에 올려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임.
	한창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팀장들이 바뀌면 연락처, 담당 사업 등을 정리해서 이사들에게 알려주면 외부와 소통하는데 도움이 될듯함. • 만화축제나 포럼 학술행사 등을 운영 할 때 다양한 학회에 공문을 보내서 다양한 세미나 안을 받았으면 함. • 진흥원 감사 결과에 대해 외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은 보고를 받았으면 함.